

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후보 면접 회의록

(기록시작)

지원자1: 제가 좀 더 나서서 감사위원회가 잘 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원하게 됨

총: 감사하다. 중앙감사위원회가 최초로 설립이 되고 현재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중앙감사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지원자1: 첫 번째는 회칙이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 학생자치는 사실 회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회칙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 그래야지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회칙이 좀 아직도 불명확하고 모순적이거나 공백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 그래서 감사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회칙 개정을 전학대회까지 들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회칙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두 번째는 피감기구와의 신뢰 확보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

총: 네 감사하다.

부총: 네. 기존의 중앙감사위원회 운영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피감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받는 단위의 회칙이나 그 단위가 운영되고 있는 관례와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 예를 들면 의결기구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예산을 사전에 심의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감사를 받는 단위의 학생회들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실 것인지, 해당 단위의 학생회칙이나 학생사회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을 하고 중앙감사위원회의 사업 진행과 협의를 맞추어 나갈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지원자1: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회칙에 규정이 없긴 하지만 송실대였는지 그 쪽에서 사전에 설명회라든지 간담회같은 걸 통해서 피감기구들과 어떤 충실한, 회칙이나 이런 주 내용에 대해서 서로 회칙 내용의 숙지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서 소통의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 사실 개강 후에 예산안 제출 시한까지 시간이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비공식적인 소통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 그리고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의결이 된 다음에 예산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왜냐면 의결을 받기 전에 사전에 작성해놓은 예산안을 받는 게 이게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 아닌가 싶어서 가능하면 확정된 예산안을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 그게 안 된다면 최대한 조율을 해서 예산안을 가능한 한 빨리 받는 게 최선책이라고 생각. 어찌됐든 중요한 건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만약에 위원장이 되면 대화와 소통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해나가려고 함.

총: 질문 하나 드림. 현재 중앙감사위원회는 중앙감사회칙에 의거해서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발이 됨. 피감사대상인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중앙감사위원장이 선발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자분의 의중을 여쭙م.

지원자1: 제가 아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음. 개정이 필요한 주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 제가 생각하기에도 피감기구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운위에서,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위원장을 뽑는 건 조금 그렇다고 봄. 차후에 가능하면 위원 중에 한 명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듬. 언제 이런 조항이 들어갔는지는 잘 저도 모르겠는데 위원의 의무 관련해서 위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럴 근거가 전혀 없다고 생각. 위원들도 각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뽑혀서 들어온 건데 위원끼리 동일한

데 위원장을 따로 보좌해야 되는 말하자면 하부기구로 취급해야 할 이유는 하등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들도 앞으로 개정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다만 그런 점에 관련해서는 중운위라든지 전학대회라든지 여러 학생자치기구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이 되는 경우 그런 협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함.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리하게 고쳐나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함.

총: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제4조를 보시면 중앙감사위원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회칙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의 특별기구로서 감사과정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명기가 되어있음. 여기서 기재되어있는 특별기구라 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지원자: 사실 이 특별기구라는게 작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이걸 어떤 다른 회칙에 특별기구라는 용어가 특별히 기재되어있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감사원이 대통령 밑에 있지만 직무에 있어 독립인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체계상 밑에 있기는 하지만 직무상으로는 중운위의 구체적인 감사업무에 있어서 중운위의 지시를 받거나 감독을 받는 건 아닌걸로 그렇게 이해를 함.

총: 답변 감사하다. 다른 중운위원 분들 그리고 중감위원 분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중앙문화 중감위원: 제가 먼저 질문해도 될지. 늦게 합류하는데 남은 일정동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다면, 주로 회칙에 대한 개정을 얘기하셨는데 남은 일정동안 하고 싶으신 것이 그것이 맞는지, 또 현재 감사위의 문제점이나 좋은 점을 평가하자면 어떤 부분인지 질문 드리고 싶음.

지원자1: 일단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감사위원님들이 피감기구들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위가 피감기구들과 소통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구성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그런 점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개정, 앞에 질문 같은 경우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구체적인 감사업무에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아직도 위상이 조금 위태롭기 때문에 이것을 회칙만 가지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다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많이 해서 회계 관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건전한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회칙 개정에는 제가 엄청나게 정리를 다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계속 피감기구라고 말을 쓰고 있지 않은지. 저는 감사대상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감사의 객체화시키는 대상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소한 사항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부분같은 경우에 일례로 들자면 중감위 의결 요건이 재적 1/2 이상 출석에 1/2 이상 찬성인데 과연 1/2 이상 찬성으로 모든 의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피감기구들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그래서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위원이 위원장을 보좌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것도 저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제가 위원장이 된 다음에 위원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피감기구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음. 이상임.

총: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 그리고 중감위원분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람.

사과.부: 사과대 질의있음. 현재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각 단위의 위원 분들로 구성이 된 중감위의 형태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각 단위의 중감위원들의 자리가 많이 공석인걸로 알고 있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음.

지원자1: 그 부분에 관해서는 참 저도 보니까 위원이 많이 공석인 상태인걸로 보여서 저도 되게 그게 안타깝다고 생각. 지금 그런 것 때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좀 더 기존에 있는 위원들이 중운위라든지 해당 감사기구하고 적극적으로 위원선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감사위원회 선에서 홍보를 더 많이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음.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인지도라든지 위상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고 우리가 좀 감사위원회가 좀 더 앞으로 신뢰를 쌓고 안정화되어나가면 그러면 좀 인기 없는 부분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음. 명확하게 딱 잘라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긴 하지만 일단 제 생각은 저희가 일을 잘 하면 감사위원회에도 적극적인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

총: 사과대 부회장님 답변이 되셨을지

사과.부: 네 답변 감사하다.

총: 다른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 중감위원회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람. 추가 질의 있으실지?

총: 추가질의 없으신 걸로 하고 지원자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지원자1: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작년에 위원님들이나 갈등을 겪었다고 했는데 저는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대다수의 많은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중감위가 가야되는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 판단하셨다고 생각함.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더 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신뢰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소통이나 대화나 이런 걸 잘 할 수 있다면은 어렵게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면접 과정에서 강조를 드렸습시다마는 대화와 소통에 방점을 찍을 것을 말씀드리고 싶음. 제 목표는 위원장이 되면 신문에 안 나는 걸 목표로 함. 신문에 안 나고 조용히 감사를 완료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여가는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목표하고 있음. 감사위원장이 된다면 대화와 소통, 신뢰하고 건전한 회계 관행의 정착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 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총: 고생 많으셨음. 면접 결과는 차후 권한 대행님께 보내드리겠음. 퇴장하셔도 좋음.

총: 다음으로 지원자 초대하도록 하겠다. 제 목소리 들리실지?

지원자2: 들린다.

총: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음.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말씀해주시기 바람.

지원자2: 제가 이번에 중앙감사위 위원장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가 학교생활을 올해로 6년차에 접어드는데 6년차 학교생활 하는 동안 그래도 학교에 한 번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지원함. 그리고 감사위원이라는게 대부분 학우들이 생각하실 때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경험이 중요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지 저는 저 나름대로 경험과 지식이 이쪽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함. 그쪽 관련해서는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 저는 이제 감사위 활동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코딩 지식이나 공학적 지식을 응용해서 업무 자동화를 하겠다고 적어드렸음. 많은 분들이 후대 감사를 진행할 때도 제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나 업무 활동을 이용해서 더욱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임.

총: 네. 현재 중앙감사위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딱 한 가지만 말씀해주시기 바람.

지원자2: 사실 제가 지원을 한 이유는 그냥 학교에 도움되고 싶다는 거였고, 제가 중앙감사위원회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지는 않았음. 제가 그냥 며칠 사이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사실 학우분들에게 많이 알려져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실제로서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함.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에 사퇴하셨던 이전 위원장님께서도 사실은 어떤 이유로 사퇴하셨는지

저도 아직까지, 제가 관심이 좀 덜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제가 감사위원장이 되면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총: 감사하다. 지원자분께서는 당연히 중앙감사위원회의 회칙을 읽고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이 됨. 현재 중감위 회칙에는 상충되는 부분도 많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은데 지원자분께서 생각하시는 중감위 회칙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지원자2: 일단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회칙을 읽은 것은 사실이지만 회칙을 자세하게 검토해보지는 못함. 그래서 제가 어디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중감위원장이 된다면 회칙에 대한 부분도 지적해주신대로 여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총: 중앙감사위원회는 피감사대상에게 행하는 징계권이 없기에 강제성이 부족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신게 있는지 묻겠음.

지원자2: 그 부분은 제가 의문이었던 부분이기도 함. 일단 실효성면에서는 감사위원회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감사원도 실제 실효권은 없음 감사를 권고하거나 개정을 권고할 뿐. 하지만 감사원의 권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함. 그와 마찬가지로 중앙감사위원회도 감사원과 같은 권위를 갖추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학우분들에게 인정받은 기관이 된다면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봄. 그리고 저희가 학내 언론이라든가 다른 학내 커뮤니티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학내 운영하시는 분들을 모두 저희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임. 그런 분들에게도, 죄송하다 제가 지금 허리가 많이 아파서, 그 분들에게도 저희가 많이 활동이나 감사 결과 이런 것들 그리고 진행되는 일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신뢰성이라든가 방금 말씀해주신 실질적인 감사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적다라는 문제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저는 방금 말씀한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자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

부총: 답변 감사하다. 부총학생회장 임규원이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중감위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된 이래로 꾸준히 피감사단위의 의결권한과 중감위 활동 충돌문제가 꾸준히 거론이 되고 있음. 예를 들면 보통 예산안이라는 것은 소속 단위 학생의 최고의결기구 혹은 상시의결기구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을 진행하는데 지금까지 중감위에서 해당 예산안을 의결기구에서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예산안을 송부 받아서 검토한 사례가 있었음. 이에 대해 몇몇 단위의 문제제기도 있었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자분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추후 지금까지 중감위에서 진행해왔던 업무방식이 반복이 돼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혹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방지책을 마련하실지 질문.

지원자2: 질문해주신 걸 제가 정리해보자면 개별단위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예산이 심의되기 이전에 저희가, 죄송하다, 피감기관에 자료를 넘겨받아서 감사를 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함. 그런 문제점은 사실상 권위의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권한의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예산안 편성과 집행에 관해서는 피감기구의 장 분들이나 학우분들에 우선권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중감위같은 감사기관은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말씀해주신 피감기관의 예산을 미리 보거나 하는 월권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장으로서 지원을 드리니까 장으로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규정이나 단위체 별로 감사규정이나 감사방법에 대해서 철저히 표준화와 공정성, 투명화를 기획하고 있음. 그리고 그걸 이제 서로 간에 견제를 통해서 극복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장으로서 제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단위 주체, 학우일수도 있고 개인일수도 있고 어떤 조직일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대답을 드릴 수 있을 듯.

부총: 답변 감사하고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려고 함. 중감위에서 보통 예산안의 심의나 결산안의 감사를 진행할때는 중감위에서 각 양식을 배포해서 해당 단위에서 양식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해당 양식이 각 단위의 특수성을, 각 단위가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혹은 각 단위에서 학생들의 동의아래 사용되고 있던 예산안의 내용이나 양식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최근의 사례를 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없었던 어떤 기관에서 서류를 출력해서 팩스로 보내는 등의 과정이 피감기관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기관에서의 업무진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실무담당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기도 함. 이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계신지, 혹은 인지하시거나 인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피감기관 각각이 가진 예산운용의 특수성이나 감사업무의 효율화, 그리고 감사업무를 함께 진행하는 피감기관 실무진이나 대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지원자2: 첫 번째로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전 동아리 회장을 했었음. 회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동아리연합회에서 예산을 받아오고 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음. 제가 기계공학부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힘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그리고 개별 단위들이 여러 가지로 개별적으로 편성하고 규정해서 사용해온 여러 예산도 있다는 것을 제가 동아리 회장으로서는 충분히 확인한 바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과 같은 경우는 학우분들, 단위 주체의 주인이 되시는 학우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가짐. 의견을 바탕으로 여러 분들이, 여러 학우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시면 말씀드린 업무를 자동화하고 규격화해서 여러 가지 양식을 배부해드린다거나 양식을 역으로 올려주시면 다시 절차에 맞게 규격에 맞게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최대한 피감기관분들과 협의를 하고 결정적으로 최대한 저는 투명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투명하게 그 부분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생각. 그 부분을 말씀드린 팩스나 어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지만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림.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최대한 전산화를 하고,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최대한 고려를 많이 해서 많은 단위주체분들이 어려움 없이 감사에 참여하실 수 있고, 감사에 참여하시는 것이 투명한 회계와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뜬구름 잡는 말만 하고 당연한 이야기만 하는 것을 개의치 말아주시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일념 하에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음.

경경.정: 경경대 질의.

지원자2: 죄송한데 말씀이 잘 안 들림. 살짝 끊겨서 들림.

경경.정: 지금 잘 들리는지? 저희한테 말씀해주신 지원동기, 아까 발언하실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 중감위에 도움이 될 것이라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식을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하고 지원동기, 활동계획을 보면 감사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중감위에 도움이 될지와 함께 개발하신 프로그램이 오류가 날 가능성이나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진행하실지 궁금함.

지원자2: 제가 질문을 세가 지로 요약해보면 어느 부분에서 기술적 강점을 가질 것인지 질문해주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떠한 프로그램 만들 것인지 마지막으로 그 프로그램에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질문인 것 같음.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대로 저는 프로그램적, 개발자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동아리 회장을 했던 게 사실 제일 높은 직책에 있던 거라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동아리 활동의 전산화를 추진했었음. 그때 효과가 확실히 좋았다고 느꼈던 게 저희는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하게 느끼고 인터넷에 거부감이 없는 세대임. 그래서 인터넷 페이지라든가 앱 같은거를 간단한 앱이라도 개발을 해서 동아리 활동에

사용을 하거나 설문조사 같은 걸 진행할 때 사용함으로써 저희는 꽤 많은 활동량 증가와 활동 기록을 남긴다든가 하는데 이득을 봄. 이 부분에 영감을 얻어서 현재 여러 단위들이 회계 감사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데 저희가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를 하거나 인터넷 폼이라도 제대로 갖추어져서 규격화 되서 만들어 놓으면 운영하시기 편리하실 것. 하다못해 스프레드시트라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 개발자 경력을 갖추고 있으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개발자는 제가 개발을 고등학교 때 시작했기 때문에 7년째 개발하고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두 개 개발했고 게임을 개발함. 어플리케이션 사실 출시는 안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우선 말씀드렸던 회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혹은 데스크탑 프로그램임.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해진 규격에 금액을 입출력하는 프로그램만 제대로 만들어놔도 훨씬 운용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혹시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힘들시거나 이용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규격화해 놓은 입력을 해드릴 수도 있는 것. 저는 그런 식으로 사용법이나 운영방법을 알려드리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규격화 및 전산화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오류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수기로, 오류를 대비해서 출력을 해놓는다거나 백업을 해놓는다거나 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함. 그 부분은 제가 장이 된다면 중감위에서 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함. 그 부분에 대한 보안 이슈나 이런 거는 철저히 공개적으로 깃이나 깃허브같은 걸 활용해서 슬랙같은 걸 활용해서 공개적으로 모든 코드를 공개한다거나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함.

경경.정: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총: 질의가 하나 있어서 혹시 해도 될지 모르겠음. 말씀해주신 규격화 효율화된 프로그램 새로 개발하신다는 프로그램이 피감기관과 함께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피감기관이 보다 쉽고 피감기관이 가진 특수성에 위배되지 않게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데는 어떻게 도움이 될 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람.

지원자2: 일단 기본적으로 피감기관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양식이 있는 걸로 앎. 양식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산안이라든가 예산집행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두 내야 된다. 그런 거는 저희가 최소한 스프레드시트라도 만들어드리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시거나 각자 따로 입력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모든 특수성을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프로그램 개발과정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기존에 사용하던 어플들을 검토를 하게 된다면 저희도 이제 충분히, 저도 몇몇 다른 개발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과 충분히 개발 자체는 할 수 있을 걸로 봄.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냐고 말씀을 주시면 저는 사실은 개별성과 특수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표준화가 그거와 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자금 운용이나 자금을 이제 감사를 받으실 때 저에게 이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만드시는 거는 최소한 쉽게 만들어드릴 것이다 그 정도는 확신할 수 있을 것.

총: 감사하다. 추가 질의 있을지?

경경.정: 지금 면접 과정에 있어서 지원자분께서 개발자적인 측면에서는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중감위 내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을 때의 내용은 아직까지 중감위 회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중감위 내에서의 중감위원장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이 부분 여쭙봄.

지원자2: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저의 개인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연히 감사위원의 장으로서 위원장의 역할은 당연하겠지만 감사에 대한 철저한 보증이자 저의 책임 소재가 가장 높은 사람임. 저도 잠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성을 확립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도 결국 방향제시의 일환. 저도 이제 장이 된 적이 별로 없지만 중감위원장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각오나 이런 걸 말씀해주신 거라면 일단 저의 목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하고 모든 분들이 더 깔끔하고 편한 감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고 그걸 위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이 리더로서의 방향, 역할이라고 생각. 방향성 제시에는 당연히 공정과 투명성, 편리함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 편리함을 어필하는 것은 그 부분이 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1순위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음.

경경.정: 답변 감사드린다.

총: 추가질의 있으실지? 질의 없으신 걸로 하고 지원자분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원자2: 일단 지적해주신 부분이란 오늘 면접 때 말씀해주신 부분 제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더욱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음.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지적해주셨던 부분들 제가 회칙 부분이나 실질적인 실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제가 관련 학과도 아니고 경험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은 같이 일하는 동료 분들과 같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제가 직접 회계를 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은가 저는 장으로서 리더로서 정말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이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 비전과 소프트웨어적인 능력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선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임. 마지막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음.

총: 고생 많으셨음. 면접 결과는 차후 문자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퇴장하셔도 좋음.

지원자2: 감사하다.

총: 다음으로 마지막 지원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음.

총: 이우진 학우님 제 목소리 들리시는지?

지원자3: 들린다.

총: 우선 중운위 개회와 앞선 지원자분의 면접이 길어져서 좀 늦어진 점 양해말씀 드리겠음. 면접 진행하도록 하겠음. 자기소개와 지원동기 말씀해주시기 바람.

지원자3: 네. 이제 단과대학 총새주를 끝으로 학생자치에 있어서 마지막의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함. 그러다가 내가 학생자치를 처음 했던 때가 언제인지 고민을 했고 그 때가 1학년 처음 단과대 학생회 들어와서 회계를 담당했을 때라는 걸 기억을 함. 그때 참 열정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했던 기억이 있는데 마무리로 그때의 열정과 믿음을 갖고 마찬가지로 한번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앙감사위원회에 지원하게 됨.

총: 중앙감사위원회는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지원자3: 회칙상으로는 중앙감사위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투명한 회계감사를 통해 학생자치의 신뢰를 증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음. 사실 중앙감사위원회가 현재 감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제가 생각하는 감사의 개념은 다르다. 일방향적으로 학생집단에게 감사를 행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시정요구하고 그것에서 나아가서 조금은 서로 소통하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어떻게 보면 학생집단의 올바른 회계시스템과 투명한 예산사용에 대해서 서포트해야 하는 역할에서 중앙감사위원회가 감사라는 매개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감사를 하거나 또는 학생집단 내에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학생집단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사용내용이나 목적까지 개입을 하는 거는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칙상 내용 그대로 투명한 회계감사를 통해 학생자치 내 신뢰를 증진하는 방

향으로 존재목적이 확립되어있다고 생각.

총: 네. 중앙감사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남.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학생자치권을 훼손하고 보장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원자3: 일단 지금 현재 중앙감사위원회 인원이 4명으로 알고 있음. 상당히 적은 인원인데 현재 단과대 개수에 비해서는 반도 안되는 인원이다가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부족한 숫자라고 알고 있음. 이 인원부족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고민을 해봐야 할 것. 일단 인원부족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구조적인 개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함. 구조적으로 현재 위원장 산하에 중앙감사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접 전에 타 학교 사례들 회칙이나 진행 방식 진행 상황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알아봄. 실제 중앙감사위원이 단과대 감사위원장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단과대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인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그래서 타 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본 결과 1년에 정기 감사가 총 두 차례 있음. 매 학기 한 차례씩 있는데 이때마다 학과 감사위원을 모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함. 이 경우 학과 감사인원이 한 학기에 정기감사를 진행할 때 5월에 진행한다고 했을 때 4월에 모집을 하고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알려주고 학우들과 함께 하나의 단과대를 감사할 때 학과 인원들까지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과 감사위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이걸 중앙대학교에 도입한다면 인원부족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적재적소에 맞는 인원배치 그리고 실제 학우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니까 회계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런 전제 하에서는 딱 한 학기 정기 감사 때에만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도 적고 회계 관련 내용도 숙지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피드백이 많았음. 그래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단과대 감사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음. 나아가서 현재 단과대 감사에서 불만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 현재 감사기준이 상당히 모호한데 완성도나 신빙성 관련된 내용이 회칙에 담겨져 있음. 단과대 회계를 담당해봤을 때 단과대별로 회계가 모두 다름. 어떤 식으로 표를 작성하고 어떤 식으로 엑셀을 구성하는지부터가 전부 다 다른데 완성도나 신빙성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단과대 감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명이라고 했을 때 1대1 비율이라고 했을 때 그 한명이 생각하는 신빙성이나 정확도를 가지고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기도 했음. 그래서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보충을 통해 단과대 감사, 하나의 단과대를 감사하는 와중에서도 최대한의 인력을 동원해서 단과대 감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 마지막으로 현재 포스터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맡고 있는 부분, 역할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총 세 개 팀을 개설해서 중앙감사위원회에 홍보팀, 회계조사팀, 대외협력팀 이렇게 개설을 할 생각. 단과대 하나를 단과대 감사위원 한 명이 부담했던 것과 달리 학과 감사위원들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적인 이득을 바탕으로 팀 세 개를 개설해서 실제 중앙감사위원회에 있는 중앙감사위원들이 그 팀에 들어가서 홍보팀, 대외협력팀, 회계조사팀으로 활동하게끔 구상하고 있음. 홍보팀같은 경우는 현재 포스터를 만든다는 특정한 부분이 없고, 회계조사같은 경우에는 한 명, 지금 네 명이면 아마 단과대를 두세 개씩 맡고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한 명 당 그랬을 때 이제 한명이 할 수 있는 부담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하겠다. 한 명이 이제 워낙 많은 단과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회계 관련해서 감사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다른 인원들에게 물어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함. 그리고 혼자 고민할 문제도 결코 아니라고 생각함. 그래서 회계조사팀을 신설해서 조사팀 내에서 함께 공유하고 회계 관련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마지막으로 대외협력팀의 경우에 현재 연락망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위원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 팀이 확실하게 나뉘어져서 내부에 회계관련 교육이라든지 타 단위체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끔 회계팀까지 개설할 구상 중에 있다. 이상임.

부총: 답변 감사하다. 부총학생회장이다. 답변 중에 질문이 생겨서 드림. 학과 단위로 감사위원을 선발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는 단과대위원같이 초기에 선발해서 임기를 가지고 활동하는 인원인지 아니면 정기감사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선발해서 운영하는 인원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람.

지원자3: 우선 부총학생회장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선발을 해서 학우들이 최대한 부담이 없게끔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

부총: 네. 그리고 팀제로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음. 그런데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홍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임.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정기감사 업무 외에 별다른 업무를 진행하지 않음. 해당 상황은 중앙감사위원회 회칙부터 감사업무로 그 업무를 제한해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회칙 상 감사 외 업무를 자의적으로 실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듦. 그래서 만약에 팀제로 운영을 하실 거라면 관련해서 회칙을 개정할 계획에 계신건지, 또 지금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에 상충되는 부분과 많은 문제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회칙 상에서 검토를 하셨을 때 이 부분은 좀 고쳐야 겠다 개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람.

지원자3: 네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회칙을 쭉 읽어봤고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감사이외의 역할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개정을 통해서 감사 이외의 홍보라든지 대외협력, 회계 지적까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회칙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함.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중앙감사위원회가 도움이 되는가 였음.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꺼고 또는 아닌 단과대 학생회장님들, 그리고 각 학과/부 회장님들도 계실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 일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었음. 앞서 말씀드린 감사 기준의 모호성과 별개로 또 감사일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 개강 후 감사, 그리고 종강 후 감사 이렇게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강 후 감사를 했을 때 감사 범위가 직전 겨울학기 그리고 전년도 2학기로 알고 있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중앙감사위원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집단 그리고 학생자치기구를 서포팅하는게 현재 역할에서 가장 알맞다고 판단함. 이런 근거로 미뤄직작했을 때, 1학기 감사의 경우에는 타 대학과 같이 1학기 중간에 이뤄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음. 왜냐하면 사실 분명히 직전년도 2학기과 겨울학기를 통해서 감사내용을 확립을 하고 학생회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이 되고 장점이 될 수 있겠으나 1학기중에 감사를 진행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사실 학기중에 발생하는 감사와 관련해서 중앙감사위원회의 존재 목적을 생각해봤을 때 충분히 학기 중에 감사가 이뤄지면서 그와중에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저 같은 경우에 중앙감사위원회 존재에 대해서 2016년도에 알게 되었는데 원래 다른 대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자퇴를 하고 중앙대학교에 입학한 케이스여서 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실제로 과학생회 회계담당을 했었음. 당시에 해당학교에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직접 받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1학기 중간에 감사를 받으면서 느꼈던 점이 '아 내가 1학기에 피드백 받았던 부분들을 남은 1학기 사업에도 회계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음. 그래서 회칙 상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감사 일정과 관련해서 정말 학생집단 그리고 단과대 학생회장님들, 부회장님들 정말 신경 쓸 거 많으신데 그거와 관련해서 1학기 회계까지 중앙감사위원회에서 학기 중에 정말 번거로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회계 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써 중앙감사위원회가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음. 이상임.

부총: 네 답변 감사함.

총: 질의 있으신 대표자분들, 중앙감사위원분들은 질의해주시기 바람.

중앙문화 감사위원: 질의 있음. 아까 얘기해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게 대외협력팀, 홍보팀 등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겠다는건데 중감위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됨. 근데 이렇게 하게 될 시에 인력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만약 현재처럼 그렇지 못한다면 업무만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계획방향을 잡고계신지 여쭙보고 싶음.

중감위원장: 네 우선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것이라고 생각함. 학기 중에 만약에 모집을 한다고 한들 현재 중앙대학교 중앙감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sns효과라던지 또는 학우들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관심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충분히 학과위원들이 모집이 안될 가능성이 있음.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뤄져야하는 것들이 홍보나 관심을 증대하거나 그러한 방식들인데 현재 지금 세칙으로는 타 학교에서 선출직으로 진행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선거 초반부터 학우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음.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홍보와 관련된 역할을 최대한으로 실행을 하고 현재 감사 하고 있는 단위가 많은데 비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음. 그래서 제가 작년도 겨울에 중앙감사위원회 지원 관련해서 좀 알게 되면서 포토샵 이랑 일러스트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해당 업무 일단 제가 담당해서 할 생각이고 세 개 팀을 개설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학과 감사위원들이 조금 모이는 대로 경과를 보고 일단 보류해두고 만약 학과 감사위원들이 보충이 되고 단과대 감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좀 인력 충원이 된다면 그때가서 세 개 팀 신설에 관해서 중앙감사위원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고 중운위에 해당 내용을 전달 할 예정임. 이 상이다.

총: 답변이 되셨는지?

중앙문화 감사위원: 됨.

총: 네 다른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 해주시기 바람.

사과.부: 사과대 질의 있음.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학과 감사위원 모집에 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여쭙보 고싶는데 첫 번째로 현재 단과대 위원들도 모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과감사위원 모 집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음. 추가적으로 단과대 위원이 모집이 되지 않았는데 학과 감사위원이 모집이 되었을 경우 해당 회계교육은 관련해서 누가 하는 것인지 타단과대위원의 업무 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이 점 궁금함.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중앙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업무 외에 홍보팀, 대외협력팀, 회계조사팀 팀제로 나눠서 홍보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 싶음.

지원자3: 두 번째 말씀해주신 부분만 살짝 요약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사과.부: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감사위원이 어느 정도 모집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팀제 로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 중감위원들은 기존에 생각했던 업무와는 다른 방향으로 팀들을 또다시 편 성이 되어서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것인데 굳이 이 세 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고 싶으신 이유가 좀 더 궁금함.

지원자3: 10초만 시간을 주실 수 있으신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음. 답변 드리겠음. 우 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단과대 보충인원도 현재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학과/부 감사위원 까지 모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또 학과/부 감사위원들이 모집이 된다고 한들 지금 현재 단과대 감사 위원들도 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질문자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계획은 하고 있으나 충분히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그럼 에도 최대한 해당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하는 것이고 관련해서 홍보나 sns를 통한 홍보나 학 우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있겠지만 분명히 확실히 100% 단과대 감사인원을 보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과/부 감사위원을 보충할 수 있다라고 제가 100%를 말씀드리는 건 사실 여러분들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꾸준히 노력을 해서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두 번째 질문에 관해서 단과대 위원들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음. 충분히 그 려 수 있다 라고 생각함. 만약 학과/부 감사위원들이 충족되지 않고 현재 체재로 팀까지 개설한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대 부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말씀이 맞다고 판단함.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노 력들을 선행하였을 때 팀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 최대한 팀제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학과/부 감사위원분들께 협조를 구하고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학과/부 감사위원분들께서 관심을 기울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음. 마지막으로 회계 교육과 관련해서도 첨언을 드리면 단과대 감사위원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과/부 감사위원들이 지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회계에 대한 접근성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듬. 단기적으로 시행이 되는 일인 만큼 기간에 대한 부담은 적을 수 있겠지만 철저한 회계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접근하기 더 어려워질 것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발이 된다면 여러분께서 임명을 해주신다면 시험기간이 종료 되는대로 각 학교의 중앙감사위원장들을 모두 만나볼 계획임. 해당 가능한 선까지 지방에도 내려가서 실제로 면담을 해보고 회칙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현 상황에서 중앙대학교에서 이 모델이 적용하기에 적합한지 실제로 나눌 계획이고 회계교육에 대한 공급 관련해서는 최대한 전문가 집단을 알아보겠으나 조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 학교 중앙감사위원회에게 협조를 구해서 중앙감사위원장님께서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해 주시는대로 뭐 자료를 주신다든지 관련 내용을 전달해주시는대로 저희 차원에서 그 내용을 가공하고 2차자료로 만들어서 학우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단과대 감사중에도 단과대분들께도 예결산안이라든지 영수증, 증빙서류 어떻게 첨부해야하는지, 둘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수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정말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음. 그래서 단과대 조사도 절대 마다하지 않고 각 단과대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각 단과대에 어떻게 회계감사에 접근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음. 이상임.

총: 네 다음 질의 반도록 하겠음.

중앙문화 감사위원: 저 질문 다시 있는데 괜찮은지?

총: 네

중앙문화 감사위원: 아까 총학생회장님께서 얘기했던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 다른 후보자님께 했던 질문을. 중운위는 사실상 중감위의 피감기구인데 이 기구를 통해 중감위원장을 뽑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특별기구의 위치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음.

중감위원장: 답변드리겠음. 우선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볼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함. 우선 중운위같은 경우에 현재 피감기구로 알고 있는데 중운위에서 중감위원장을 선발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관점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아니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음. 중운위를 감사하기 때문에 중운위에서 중감위원장을 뽑는 것과 관련해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문제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타 학교 사례를 조금 조사해봤음. 타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참고를 해봤는데, 실제 선출직이 아닌 이상 저의 판단으로는 중앙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판단하는 가장 적합한 단체 또는 인원은 중운위라는 판단이 들었음. 분명 선출직으로 한다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참여를 해서 중감위원장 그리고 타 학교처럼 부위원장까지 선출할 수 있겠으나 현재 처음부터 선출직으로 출발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정당성의 측면에서 분명히 간선이 직선에 비해서 조금 부족할 순 있겠으나 최선이 없는 한 차선을 선택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맞다고 판단이 듬. 그리고 중감위의 위치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중감위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봤음. 그리고 중감위의 존재목적은 학생자치의 신뢰증진 바로 저는 학생집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계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함. 분명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 시스템이 과거에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주십시오, 감사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 온라인으로 게재하고 시정요구 게재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보다는 정말 단과대학 학생회의 회계, 그리고 학과/부 학생회의 회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원해주고 감사 중에 어떤 부분을 고쳐줘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고쳤을 때 학우들의 신뢰를 더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잃어버린 신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앙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단과대별로 심도있게 전수조사를 하고 자료조사를 한 뒤에 도움을 드리고 감사 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고 고민하는 방향으로 중앙감사위원회가 현재에는 위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상임.

총: 네 질의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 지원자분께서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지원자3: 정말 긴 시간까지 면접 진행해주시느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총회때매 고생하셨을텐데 그 부분도 정말 고생이 많으심. 마지막으로 드리고싶은 말씀은 계속 재차 말씀드리지만 중감위는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 말의 서두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학기가 끝나고 임기가 11월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때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딱 생각하시기에 중감위원회가 있어서 정말 든든했다 라는 생각이 드시게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움직일 생각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했던 말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정말 오래 걸릴수도 있겠지만 우사인 볼트가 100m를 완주할 수 있었던 까닭은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함. 현재 중감위에서 한명이 나간 것을 공고로 확인을 했는데 우선 제가 할수 있다라고 약속을 여기서 드리는 건 학생자치하면서 느낀게 절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말자였음.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린 말씀들은 전부 여러분에 대한 예의이고 약속이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 않겠음. 확실히 이번 면접 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겠음. 마지막으로 그만두는 것 관련해서는 그만둘 수 있음. 충분히 모든 사람의 사정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친구의 힘듦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절대 임기 간 그만두지 않겠음. 만약 그만두려는 학우들이 있다면 그 문제는 저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만 둘 정도로 문제가 악화되고 정말 이 집단에서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아 내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소속한 집단에서 해결할 수 있겠다, 위원장과 말도 통하고 위원들과도 충분히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 라는 분위기를 반드시 만들겠음. 이상 이우진이었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약속 반드시 지키고 정말 남은 마무리, 이제 학생자치를 3년 동안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순간 임하겠음. 이상임.

총: 네 지원자분 긴 시간동안 고생하셨음. 결과는 차후 문자를 통해 말씀드리겠음. 퇴장하셔도 좋음. 중감위원분들도 퇴장하셔도 좋음. 중앙운영위원회 공지방에 투표 하나를 개설해드렸다. 투표참가대상은 금일 면접에 참가하신 단위만 해당되고 간호대, 경영대, 동연, 사과대, 사범대, 인문대, 통일공대, 총, 부총만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면접에 들어오지 않은 단위가 면접 투표에 참가하는것도 아이러니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면접에 참가하신 단위에게만 의결권을 드린다는점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음. 기권도 있음. 기권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권하시고 세분에 대한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음.

사과.부: 사과대 투표하기 전 질의가 있는데 간호대 대표자분이랑 동연 대표자분은 남재준 학우님 면접때 안 들어오셨는데 투표를 같이 진행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림.

총: 네 그러면 간호대 학생회장단하고 동아리연합회 학생회장님은 남재준 학우님의 면접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도 제외하고 일곱 단위에 해당하는 대표자분들에게만 의결권 드리겠음.

사과.정: 그럼 의결 단위수가 맞는지?

총: 일곱 단위가 있음.

사과.부: 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데 이 감사위원장선발 투표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면접에 참여한 일곱단위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총: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람.

사과.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면접을 진행한 과정에 대해서 속기록을 작성하여서 다른 중운위원분들께도 공유해 드린 상황에서 감사위원장선발을 진행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한데 혹시 면접일정에

의해서 빠르게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는 단위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총: 아님. 중앙감사위원회 회칙에 따르면 사퇴 시 30일 이내에만 선출하면 되기 때문에 속기록을 작성
을 하고 투표권을 드려도 전혀 일정상 문제가 없으나 그래도 오늘 면접에 직접 참여해주신 분들이기 때
문에 의결권을 제한적으로 드리려고 했음. 사과대 부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속기록을 바탕으로 모
든 단위에게 의결권이 주어져야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또한 부총학생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됨. 그러면 해당 투표는 철회하고 해당 속기록 이후 모든 단위를 대
상으로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음. 네 속기록 오늘까지 써 드릴 테니 내일까지 투표해주시기 바람. 중앙감
사위원장 사퇴일이 3월 8일임.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상 30일 이내에 선출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속기록 작성하고 내일 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음. 참고해주시기 바람.

중앙운영위원회 18차 임시회의 회의록

인문.정: 부총에게 질의해도 괜찮을지?

부총: 네.

인문.정: 아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논의가 아니라 보고만 한다고 했는데.

부총: 맞다. 일단 보고를 드리고 보고만 드리고 끝내지는 않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의견공유 정도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음. 어제 논의된 내용 중에 중운위에서 3개조 안건에 대해 본부와 교섭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오늘 당장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식 논의는 다음 중운위 회의에서 진행하고 오늘은 사안보고와 보고된 사안에 대한 간단한 의견공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음.

총: 부총이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은 어떤 논의를 한다기 보다는 어제 있었던 총회에서 나왔던 중운위 논의해야 될 게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중운위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총: 첫 번째로, 저희가 일전에 회칙 제13조 소집에 해당하는 1항, 2항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했음. 1항에 있는 3일 이내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는 내용과 2항에 있는 소집 이유를 명시해 10일 전에 공포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항이 상충해서 어떠한 항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를 논의함. 중운위는 1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총회를 3일 이내 소집한 바가 있다. 어제 총회에 참가하신 학우분들께서 왜 중운위가 해석해서 총회가 무산되게 하냐는 말씀들이 있었음.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총회에서 중운위가 거론이 되었고 중운위가 왜 1항을 적용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한 입장문을 작성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 그래서 입장문 작성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 같음. 이 논의는 다음 회의 때 논의하도록 하겠음. 두 번째로 어제 총회는 공식적으로 무산이 되었으나 총회 후속조치로 참가하신 학우분들과 토의를 진행한 바 있음. 토의 과정에서 네 가지 투표가 진행되었고 네 가지에 대한 투표명은 차례대로 읽어드리고 채팅방에 남겨드리겠음. 긴급 중운위를 통해 세 가지 안건을 채택하고 신속히 대학본부와 이에 대한 교섭에 돌입한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안건은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세 가지 안건을 말하는 것. 총 677명 중 632명이 찬성하고 16명이 반대, 29명이 기권함. 두 번째 투표는 2차 학생총회를 기획하라는 것. 678명의 학우분들중 649명이 찬성했고 10명의 학우분이 반대를, 19분의 학우분이 기권함. 세 번째로 학생총회의 무산 시 동일 안건으로 학생 총투표를 시행한다에 대해서 429명의 학우분이 찬성, 7명의 학우분이 반대, 13명의 학우분이 기권함. 또한 네 번째 투표명은 2번에 해당하는 2차 학생총회를 5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 내에 580여명, 여기서 말하는 580여명은 프로젝트 탈곡기에서 제출하신 연서명 명단을 말씀드리는 것. 580여명이 발의한 세 개의 최초 의결 안건이고 거기다가 중앙대학교 학생자치 전반에 대한 논의안건 총 4가지 안건으로 2차 총회를 개의한다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였고, 304명의 학우분이 찬성을, 9명의 학우분이 반대를, 9명의 학우분이 기권을 해주셨음.

2번 투표에 대한 개인적 의견으로 신원확인이 진행된 분들을 통해 '2차 학생총회를 기획하라'에 대한 투표에서 649명의 학우분들께서 찬성해주셨기 때문에, 학생총회 소집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생각함. 5월 초 정도에 기획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개인 의견.

또한 1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안건은 총학생회 회칙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 3번, 4번에 대한 투표의 실효성과 공신력을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함.

다음 중운위 회의에서는 입장문 그리고 1번, 3번, 4번 투표에 대한 실효성 해석 여부 (해석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자분들도 의견정리를 한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음.

부총: 1번, 3번, 4번 안건은 회칙이나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100여명이 넘는 다수의 학우분들이 의사를 표명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는 안건이라 생각함. 이런 점은 감안하여 단

운위에도 논의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음.

총: 추가 질의 여부 확인

인문.정: 어제 학생총회 속기록은 올라오는지?

총: 속기록은 올라갈 예정이며, 학생총회 후속 조치인 자유토의가 약 6시간정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속기록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 집행부 차원에서도 빠르게 작성하려고 하고 있음.

부총: 속기록 게시는 확정된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공지.

총: 1번 투표 '긴급 중운위를 통해 3가지 안건을 채택하고 신속히 대학 본부와 이에 대한 교섭에 돌입한다'에서 말하는 '긴급 중운위'가 오늘 회의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에 예정된 정기회의 전 한 번 더 중운위를 소집을 하는 것을 '긴급 중운위'라고 하는지에 대한 대표자들의 의견을 여쭙봄. 오늘 후속 토의에 있었던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것도 '긴급 중운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전 사이의 한 번 더 긴급 중운위를 소집해서 해당 안건을 채택하는 것인지 앞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여쭙봄.

인문.정: 어제 중운위원분들 중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총학생회장을 통해서 어제 내용을 보고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안건들에 대해 중운위원 분들도 그리고 단운위 의견도 여쭙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다음 주 월요일 중운위 회의 전에 한 번 더 긴급 중운위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함.

동연.부: 인문대 회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긴급 중운위가 굳이 한 번만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지금 여는 것도 긴급으로 볼 수 있지만, 나중에 월요일 한 번 더 연다고 해서 그것이 긴급 중운위로서 지금하고 있는 회의가 효력을 잃는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부총: 월요일 전에 긴급 중운위를 소집해서 안건을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다른 대표자들의 의견을 여쭙봄.

간호.정: 말씀을 해주실 때 내용 공유와 보고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음.

부총: 네, 제가 그 초반에 말씀하신 걸 잘 못 들어서 혹시 대화 맥락을 잘못 진행하고 있나 해서 그 인문대 회장님께 다시 여쭙봄, 말씀하신 사항에 긴급 중운위 회의 그리고 충분한 토의 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다음 주 월요일 정기회의 이후에 긴급 중운위를 소집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신건지?

인문.정: 어제 중운위 분들 중에 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으로 어제 학생총회에 대하여 보고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함. 다음 주 월요일 정기 중운위 회의 전에 긴급 중운위를 한 번 더 소집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함.

총: 다른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여쭙봄

동연.부: 월요일 중운위 전에 긴급 중운위를 여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표함.

부총: 월요일 전에 긴급 중운위를 여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대표자분들이 계신지 여쭙봄. 앞선 의견에 대한 동의 의견 표명도 부탁드립니다.

경경.정: 인문대 회장님 의견에 동의를 표함.

간호.정: 월요일 전에 긴급회의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든 동의 의견 제시.

사범.비대위: 긴급회의에 동의를 표함.

사과.정: 긴급 중운위를 여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표함. 추가적으로 학생총회에서 나온 네 가지 안건과 단운위에서 어떤 부분을 논의하면 되는지 정리해주신다면 오늘 임시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대표자분들도 각 단위에서 논의할 때 원활할 것 같다는 의견 남김.

총: 의견을 확인함. 단운위 의견 정리 시간을 고려해 토요일 일요일 두 가지로 임시회의 투표 진행하겠음. 일자 투표를 진행한 다음에 시간대 투표를 진행하겠음. 최대한 대표자분들이 참석 가능한 시간대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두 가지 투표를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과.정: 토요일 일요일 1~2시간 간격으로 모든 시간대를 투표에 올리는 것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데 좋을 것 같다.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인 만큼, 일자별 요일별 한 번에 투표에 올리는 것을 권유.

부총: 의견을 확인함. 한 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함

총: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를 기준으로 함을 공지

간호.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

총: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명대가 되어 온라인으로 진행해야할 것 같음. 추가 의견이 없는지 확인. 기타 안건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자치공간을 최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학생회실도 적은 인원으로 운영해주시기를 각 학과 회장님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과.정: 저희 부회장님께서 중감위원장 면접할 때 속기록을 하고 계셨어서 그거 부총학생회장님께 개인적으로 공유해드릴지? 그럼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괜히 제안을 해서 속기를 요청 드린 것 같은 상황이어서 죄송해서.. 이따 부회장님께서 부총회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음. 근데 오타가 좀 많을 수 있음.

총: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감사를 표함. 중운위 임시 회의를 폐회함.

